



書 글에 음률을 더하니

律 세상의 노래가 되었네



(우)13487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9층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 스마트오피스 23호

T +82-70-4417-3165

M +82-10-6203-3166

E seoyullidea@naver.com

H www.bookconcert.net

www.facebook.com/seoyullcom www.instagram.com/bookconcert_seoyull



서 율

書

책을

책의노래 서윸(書律)은 문학적 감성을 담아 노래하는 밴드이다. 문학에서 접할 수 있는 내면의 철학적 성찰, 진정한 사랑의 의미,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풍경 등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2008년 결성된 이래 따뜻하면서도 감성적인 어쿠스틱 사운드를 바탕으로 장르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창작곡들을 선보이고 있다.

서율의 음악은 팝, 락, 스윙, 보사노바, 포크 등 다양한 장르들과의 결합을 통해 사운드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가사는 한 편의 시 같은 은유, 섬세하고 진중한 표현으로 서정성과 깊이를 더한다. 이러한 시도는 여러 작가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어 정호승. 김용택, 이문재, 김재진, 문태준, 박경희 등 여러 시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시와 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곡과 무대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서율은 MBC <TV 문화사색>,<한겨레>,<조선일보> 등 유수의 언론에서 주목 받으며 음악계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오랜 기획과 제작기간을 거쳐 발표한 정규 2집 앨범 <그랑투르: 바람과 길과 눈>은 재즈 아티스트, 스트링 트리오와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클래시컬한 깊이를 보여준다. 700회가 넘는 북콘서트를 비롯해 최근에는 <다시, 봄>과 <어쿠스틱 베케이션> 등의 콘서트가 우수공연으로 선정되어 대중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Mission

다양하면서도 실험적인 협업을 통해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한다. 뮤지션들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타 예술장르 간 활발한 결합과 교류를 기반으로 융복합 음악 콘텐츠를 창작, 모든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렉처콘서트를 제공한다.

Vision

서율(書律)이라는 이름 그대로, 다양성 있는 융복합 예술을 통해 무대를 넘어 **책과 음악이 구석구석 흐르는 세상**을 열망한다.

Recommendation

서율의 음악은 삶을 긍정하고 사람을 긍정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철환** 소설가 노래로 책을 선물하세요. 글을 노랫말로 들으면 새롭게 와 닿습니다. 이해인 수녀 시인 서율의 노래를 들으면 책의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용훈 서울도서관장 노래에 귀를 기울이면 시는 가슴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정호승 시인

HISTORY

Since2009



HISTORY

Since2009



2016

- · 콘서트 <다시, 봄> |
- · 콘서트 <다시, 봄> | 고령군 대가야 문화누리, 서천문예의전당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선정)
- · 정목스님 & 김재진 시인과 함께하는 <유나방송 벚꽃음악회>
- · 21세기북스 주최 <Book 앤 樂 콘서트> | 현대백화점 신촌 유플렉스 문화홀
- · 정호승 시인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 경주예술의전당
- · 콘서트 <어쿠스틱 베케이션> | 은평문화예술회관 외 다수

2015

- · 정규 2집 <그랑투르 바람과 길과 눈> 발표
- · 서율 단독 콘서트 <다시, 봄> |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 (한국콘텐츠진흥원 <3차 대중음악 지원사업> 우수공연 선정
- · 콘서트 <어쿠스틱 베케이션> | 올릭픽홀 뮤즈라이브
- ·도서관에서 만난 문화가 있는 수요일 | 수원시 도서관 순회공연
- · 정목스님 & 김재진 시인과 함께하는 <유나방송 벚꽃음악회>
- · 성공회대학교 LOVE 북콘서트
- · 구로구청 책선포식 북콘서트 "초대작가: 안소영"
- · 소설가 박범신 & 서율 <울산 THE 콘서트>
- 안도현 시인과 함께하는 포엠콘서트
- · 충북학생교육문화원 북콘서트 외 다수

2014

- · 철학자 강신주와 함께하는 렉처콘서트 (서울시설관리공단)
- · 관광활성화 연계 우수공연 선정 <음악기행 시인의 마을>
- · 박원순시장참석 서울책방 재개관 기념 축하공연 (서울신청사)
- ·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 강북문화예술회관
- · 경기도인재개발원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북콘서트
- 헌법재판소 도서관 북콘서트
- · 의정부연수원 북콘서트 외 다수

2013

- 정규 1집 <책, 노래가 되다> 발표
- · 김재진 시인 <나의 치유는 너다> 출간기념 음악회 | KT체임버홀
- · 부천복사골축제 <2013 부천의 책> 선포식 북콘서트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주간 기념식 축하공연
- · 가톨릭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대전대학교 외 독서축제 다수 축하공연
- ·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고전 환상동화> 콘서트
- · 강신주 철학자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 경북도청
- · 서울북페스티벌 콘서트
- 2013 학교 독서교육대상 시상식 축하공연
- · 경주문화재단 정호승 시인과 함께하는 서율 북콘서트
- ·지식경제공무원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외 연수프로그램 다수 공연

2011-12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석 도서관인 인사회 진행 및 단독 공연 (2010-2012)
- · 이해인 수녀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샘터) 콘서트 진행 | KT 올레홀 · 명동성당 코스트홀
- · 3rd 디지털 싱글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발표
- ·지방행정연수원 & 지식경제부연수원 & 섬성물산 본사 외 <창의와 상상> 북콘서트 다수
- · 경기예술의전당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서율 콘서트>
- · <2012 서울국제라틴페스티벌> "음악으로 떠나는 라틴아메리카 문학여행"
- 전국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북콘서트> 진행
- · 유한킴벌리 & 한국YMCA <신혼부부를 위한 북 콘서트>
- · 창비 & 웅진씽크빅 외 주요 출판사 시상식 및 워크샵 공연
- 한국독서교육대상 시상식 축하공연
- · 경기 북 콘서트 <책울림> 창작극 사라진 책을 찾아서

2009-10

- ·<2009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너와 나의 이야기 콘서트 진행
- 게스트: 신경숙 작가, 부지영 영화감독 / 영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OST '함께 할 날에' 수록
- · <2009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무비톡 뮤직톡 진행
- 게스트: <과속스캔들> 강형철 감독, <춤추는 동물원> 김효정 감독, 박성용 감독
- · 서율 단독콘서트 | 샘터 파랑새극장
- ·서강대학교 故 장영희 교수 유고집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샘터) 발표 공연
- · 1st 디지털 싱글 故 장영희 교수 추모곡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발표
- · 2nd 디지털 싱글 <책의노래 서율> 발표
- · (사)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찾아가는 시낭송 음악회>
- · 전국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낭독 공연
- · 가톨릭대학교, 건양대학교, 대전대학교 외 다수 인문학 콘서트



콘서트 <다시, 봄>

Since 2015

콘서트

다시, 복



어쿠스틱과 재즈, 클래식의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다시 태어난 아름다운 우리 시(詩)

<다시, 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것(See).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스냅사진처럼 기억되는 소중한 일상의 추억들이다. 그리고 이 공연을 통해 얼어붙은 혹은 말라버린 우리의 감성에 봄을 되찾는 것(Spring).

모두에게는 각자 변함없는 영혼의 안식처가 돼준 시와 소설이 있다. 이 문학작품들이 음악으로 다시 태어난다. 한편의 아름다운 시는 그 자체로 노랫말이되고, 멜로디에 실려 우리의 온몸으로 스며든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대중음악 3차 지원사업> 우수공연 선정
-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선정
-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선정





TH(1, %

01212 MAN011111







콘서트 <어쿠스틱 베케이션>

Since 2015

콘서트

어쿠스틱 베케이셔



잃어버린 일상의 낭만을 찾아줄게요

<어쿠스틱 베케이션>은 음악과 문학 등 예술작품을 통해 안식을 즐겼던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휴가제도인 '셰익스피어 베케이션(Shakespeare Vacation)에서 모티프를 얻은 공연이다(빅토리아 여왕은 관료들에게 3년에 한 번, 한 달 남짓한 휴가를 제공했고,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셰익스피어 작품 중 5편을 정독한 뒤 독후감을 제출했다). 문학 속에서 음악을 발견하고, 음악 속에서 다시 문학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문학과 음악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지친 일상을 위로 받는, 짧지만 오래 기억될 휴식 같은 경험을 안겨줄 공연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뮤즈라이브 대중음악 지원> 선정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신나는 예술여행> 선정 2017-2018 전국 찾아가는 도서관 & 학교 북콘서트





사랑, 시를 읽다 마티네 콘서트

l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문화홀

북 앤 樂 콘서트

경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

DISCOGRAPHY

5th Digital Single

. . 가 , 기





6th Digital Single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詩



가

DISCOGRAPHY

정규 2집

그랑투르, 바람과 길과 눈 2015

01 바람과 길과 눈^{Title}

06 Roxanne

02 겨울 끝에서 (부제: 연탄길)

07 꽃바람

03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08 우리1년

04 봄길

09 시인의 왈츠

05 사랑이란

앨범의 주제는 '삶과 여행'. 타이틀 '바람과 길과 눈'은 삶과 여행의 공통점을 노래한다. 여행을 통해 만나는 낯선 풍경과 인연 등을 풍부한 시적 언어로 풀어낸다. 여행을 노래하며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존, 삶에 대한 긍정이다. 이를 위해 서율은 시인의 눈을 빌린다. 이문재 시인의 동명의 시에 곡을 붙인 '자유롭지만 고독하게'는 극단이 만연한 세계에서 어떻게 중용과 자존을 지켜 나가야 하는가를 노래한다. '봄길(정호승 시)'은 길이라는 삶의 메타포를 통해 인생을 긍정하는 우리의 자세를 담고 있다.



수록곡 '꽃바람(김용택 시)'은 일상 속 문학의 아름다움과 긍정을 발견하는 순간의 사랑도 노래한다. 어쿠스틱 사운드에 클래식 스트링, 재즈 아티스트의 참여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규 1집은 여느 음반과 달리 '책을 노래로 읽어주는 오디오북'으로 주요 도서관 추천도서를 바탕으로 독자, 작가의 요청으로 만들었다. *네이버 ' 오늘의 뮤직 ' 2013년 1월 5주 ' 이 주의 후보작 선정.

2010-2015

정규 1집

책 노래가 되다 2013

01 자전거 타고 노래부르기

07 어디엘 가도 네가 있네

02 당산 할매와 나

08 그녀는 예뻤다

03 잃어버린 일기장

09 나에게 그대는 편한 사람

04 넘어짐에 대하여

10 엄마를 부탁해

05 토닥토닥^{*Title*}

11 사랑리뷰

06 새벽편지 12 마당을 나온 암탉

타이틀곡 '토닥토닥(김재진 시)' 외에도 '자전거 타고 노래 부르기(고운기)', '넘어짐에 대하여(정호승)', '나에게 그대는 편한 사람(용혜원)', 이해인 수녀의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등 여러 시인들의 작품이 앨범의 모티프가 됐다. 이밖에도 '당산할매와 나(윤구병)', '잃어버린 일기장(전성현)',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등 동화를 모티프로 한 곡도 수록돼있다.

DISCOGRAPHY



4th Digital Single

잠깐의 생 2015

음악적 모티프가 된 책 <잠깐의 생>(꿈꾸는 서재)은 김재진 시인의 어른을 위한 성장동화. 생의 의미와 사랑의 깊이를 탐구한다. 서율은 이 작품에 쓰인 핵심적인 문장들을 가져와 가사를 구성, 하나의 짧은 사랑 이야기로 만들었다.

3rd Digital Single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2011

이해인 수녀의 산문집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샘터)를 모티프로 만든 곡. 봄의 풍경들과 이해인 수녀의 이야기를 가사로 담고 잔잔한 보사노바 리듬과 멜로디로 봄을 표현했다.



2nd Digital Single

책의 노래 서율 2010

타이틀곡 <책만 보는 바보>는 실학자 이덕무의 삶을 음악으로 그렸다. 서율은 안소영 작가의 동명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곡을 만들었는데, 당시 이덕무가 겪었던 삶의 애환, 서자들의 설움, 시대의 바람소리, 고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독서의 즐거움을 서정적인 멜로디로 표현했다. 국악적 선율 위에 가야금과 해금을 이용해 극적인 느낌을 살렸다.





1st Digital Single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2010

고(古) 장영희 교수의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샘터)의 향기가 음악으로 되살아난다. 수록곡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영희에게', 'with ' 등 3곡. 천국과 지상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이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은 천국에서 보내는 오월의 안부를 담은 발라드. 장 교수가 이야기하던 기적의 의미를 희망 가득한 멜로디로 노래한다. '영희에게'는 지상에서 보내는 답가 형식을 취했다. 장 교수를 아끼던 이해인 수녀의 시에 잔잔한 멜로디를 덧붙여 장 교수를 추억한다. 'with'는 천국과 지상 모두의 축제가 컨셉이다. 신나는 왈츠로 반포4동성당 안젤루스 합창단 어린이들과 서율 멤버들의 코러스, 풍성한 반주가 한 데 어우러진다.

OST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19 함께할 날에 2009

부지영 감독, 공효진과 신민아 주연의 영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에는 최승현 음악감독과 재즈보컬 말로, 재즈 피아니스트 노성은이 참여했다. 서율은 19번 트랙에 수록된 함께할 날에 참여.

